

#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전문직자아개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희연<sup>1</sup>, 김보미<sup>2\*</sup>

<sup>1</sup>가톨릭상지대학교 간호학과 초빙교수, <sup>2</sup>경북전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Effects of Nursing Students' Nurse Image and Professional Self Concept on Career Search Behavior

Kim Hee Yeon<sup>1</sup>, Kim Bo Mi<sup>2\*</sup>

<sup>1</sup>Professor, Dept. of Nursing, Catholic Sangji College

<sup>2</sup>Professor, Dept. of Nursing, Kyungbuk College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전문직자아개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은 Y지역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2, 3, 4학년 학생 153명이며 구조화 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측정도구는 간호사이미지, 전문직자아개념, 진로탐색행동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처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은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 평균평점, 표준편차, Pearson's correlati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전문직자아개념, 진로탐색행동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전문직 자아개념이다. 이 변수들의 총 설명력은 모델 1에 비해서 모델 2는 2%가 증가된 25% 설명력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간호사이미지와 전문직자아개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그와 연계된 진로탐색행동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간호사, 간호사이미지, 전문직자아개념, 진로탐색행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nursing students' nurse imag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n career exploration. This study was accomplished on 153 students in the 2nd, 3rd and 4th grades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at a college in area Y,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1 to August 31, 2020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Measurement tools consisted of nurse imag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Data processing was performed using the SPSS 22.0 program where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and post examination tests by Scheffe's test, using mean score, standard deviation,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Nursing students' nurse imag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were all found to hav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nd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was professional self-concept. As for the total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model 2 showed 25% explanatory power, which was increased by 2% compared to model 1. Based on this result,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 and a career exploration action program which can improve the nurse imag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Key Words** : Nurse Students, Nurse, Nurses' Image, Professional self concept, Career Exploration Behavior

\*교신저자 : 김보미(point99930@naver.com)

접수일 2021년 7월 11일 수정일 2021년 8월 27일 심사완료일 2021년 8월 30일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전문직으로서의 확실성을 가진 개념 확립을 함으로써 향후 직업을 탐색 하는데 있어 명확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특히,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의 경우 더욱 중요하다. 2012~2019년까지 총 84개의 학교가 4년제로 일원화되면서 간호학은 학문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1], 2019년 고등학생의 장래 직업 희망 조사 결과 간호사는 3위를 차지하여 대중들에게 간호사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2]. 간호사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간호대학생들은 취업률이 타 전공에 비해 높고, 졸업 후 바로 병원에 취업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깊은 생각과 평가가 부족한 실정이다[3]. 진로탐색행동이란 앞으로 선택해야 할 본인의 진로와 방향과 진로탐색을 위해 자신의 특성에 대해 탐색하고,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행동이다[4]. 잘못된 진로선택은 취업 후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경력몰입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5]. 간호학과에 진학함과 동시에 이론을 통해 간호학적 지식을 충분히 쌓고 교내실습과 임상실습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파트가 무엇인지 파악한 후 충분한 자기탐색과 진로탐색을 거쳐 진로를 결정하고, 진로에 관한 행동을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6].

간호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관련된 선행논문을 살펴보면, 전공만족도와,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5], 임상실습경험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결정자율성 및 진로탐색행동의 관계[7], 간호대학생의 진로소명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8], 등이 있었으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간호학생들이 지각하는 간호사의 직업적 인식이나 전문직으로서의 확실성을 가진 개념이 부족한 실정이다.

간호사이미지는 간호사 자신이 간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간호사와 함께 상호작용하는 의료인, 병원직원, 환자, 보호자가 그동안 간호와 간호사에 대해 품고 있던 느낌을 의미하며[8], 최근 의료계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소비자들의 질적인 요구가 높아지면서 간호사의 업무도 전문화 되고 그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10]. 초·중·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간호사이미지에 관한 연구에서도 초등학생이 중고생 보다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였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높은 점수를 보여준 만

큼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남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11]. 특히, 간호대학생이 가지는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간호교육을 받는 동안 간호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면, 자부심을 갖고 교육이나 실습을 시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간호현장에서 간호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2,13].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간호사 직업에 대한 전문직자아개념 확립에 명확성을 확인시켜주며 향후 진로를 결정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요하다.

전문직자아개념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정신적 지각으로 전문직에 관한 지식과 가치, 기술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구축되는 것으로 간호학생이 전문직에 대한 자기 확신감을 가지게 되면 자존감과 임상수행능력이 향상 될 수 있다 [14,15]. 간호사에 대한 올바른 직업관을 가지지 못하면 전문직자아개념이 붕괴되고 이에 따라 긴장감과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효율적인 간호업무 수행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의 전문직자아개념은 매우 중요하다[16]. 선행연구에 의하면 전문직자아개념이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자원임을 확인하였고, 교육 시 간호대학생의 전문직자아개념의 정도를 파악하여 긍정적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17], 간호대학생의 전문직자아개념 영향요인을 연구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나타냈으며, 대학은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의 장소이며 진로 의식과 진로준비는 필요하다고 하였다[18].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전문직자아개념의 정도를 파악하고 상관관계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교육자료와 이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전문직자아개념이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전문직자아개념, 진로탐색 행동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간호사이미지, 전문직자아개념, 진로탐색행동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전문직자아개념,

진로탐색행동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이미지, 전문직자아개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서면에 동의한 Y시 소재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으로 전공과목인 기본간호학실습 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1학년 학생을 제외한 2, 3, 4학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를 구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 수준 .05, 중간 효과크기 .15, 검정력 .80, 예측변수 9개를 투입한 결과 최소표본수 150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170부를 배부하였으며 총 회수된 설문지는 160부였으며 응답이 누락된 7부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는 153부가 사용되었다.

### 2.3 연구도구

#### 2.3.1 간호사이미지

간호사이미지 도구는, Lee 등(1992)이 개발하고 Jang(1998)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자질' 9문항, '역할' 7문항, '사회참여' 7문항, '대인관계' 6문항으로 총 29개이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19,20]. Jang(199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5,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9이었다.

#### 2.3.2 전문직자아개념

전문직자아개념 도구는, Arthur(1995)가 개발하고 No&Song(1996)가 번역하고 수정·보완한 것을 Song(2010)이 기존의 27개 문항에 Girard, Linton & Besner(2005)의 윤리영역을 나타는 추가 항목을 넣은

총 30개 문항이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자아개념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15,16-21,22]. 신뢰도는 Arthur(1995), No & Song(199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5, Song(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4 [15, 16-21,2],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3이었다.

#### 2.3.3 진로탐색행동

진로탐색행동의 도구는, Choi(2003)이 개발한 검사를 사용하였으며, 자신에 대한 탐색 12문항, 직업에 대한 탐색 16문항으로 총 28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척도로 '매우 많이 하였다' 5점, '거의 하지 않았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탐색 행동에 적극적임을 반영한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3[23],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0이었다.

###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시작 전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윤리 교육 이수 후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을 충분히 시행하고 연구대상자의 자의에 의한 참여로 서면 동의 후 연구가 이루어졌다.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으며 조사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 2.5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7월1일부터 8월 31일 까지 시행되었으며,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온라인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에 대한 내용, 비밀보장과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하는 시간은 15~20분 정도 소요되었다.

### 2.6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간호사이미지, 전문직자아개념, 진로탐색행동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진로탐색행동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s test를 하였다. 간호사이미지, 전문직자아개념, 진로탐색

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20-24세(81%), 성별은 여자가 133명(87%)로 가장 많았다. 학년은 3학년이 62명(40.5%), 임상실습 시 선호부서는 특수파트가 95명(62.1%)으로 가장 많았다. 졸업 후 자신이 취업하고 싶은 분야는 임상간호사가 110명(71.9%), 간호학 전공선택의 이유는 본인의 의지가 94명(61.4%)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53)

Variable	Item No	n (%)	Career Exploration Behavior		
			M±SD	t / F	p
Age	20-24	124 (81)	78.9±24.0	1.69	.188
	25-29	16 (10.5)	85.5±21.2		
	over 30	13 (8.5)	69.2±24.1		
Gender	male	20 (13)	85.7±21.2	1.39	.166
	female	133 (87)	77.8±24.1		
Grade	2	52 (34)	77.6±25.8	1.59	.206
	3	62 (40.5)	76.1±21.1		
	4	39 (25.5)	84.6±24.8		
Preferred department	general	32 (21)	76.2±26.2	.271	.763
	special	95 (62.1)	79.8±21.7		
	community	26 (16.9)	78.4±28.7		
Field of choice	clinical nurse	110 (72)	76.9±22.7	1.32	.269
	nursing official	30 (19.6)	80.9±25.3		
	nursing education	6 (3.9)	93.6±31.5		
	other	7 (4.5)	86.5±27.5		
Reason for choosing major	will <sup>a</sup>	94 (61.4)	81.8±23.7	3.49 a>b,c	.033
	recommendation from a friend <sup>b</sup>	40 (25.5)	77.6±25.8		
	other <sup>c</sup>	19 (13.1)	66.4±15.6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진로탐색행동 정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간호학 전공선택의 이유에서 본인의

의지가 지인의 권유, 기타 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3.49, P=.033). 대상자의 나이, 성별, 학년, 임상실습 시 선호부서, 졸업 후 자신이 취업하고 싶은 분야에 따른 진로탐색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1).

#### 3.2 간호사이미지, 전문직자아개념 및 진로탐색행동의 정도

대상자가 지각하는 간호사이미지 정도는 5점 만점에 3.82±0.40로 나타났고, 전문직자아개념 정도는 4점 만점에 3.12±0.35, 진로탐색행동 정도는 5점 만점에 2.81±0.85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Nurse imag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degree of consent to career exploration behavior (N=153)

Variables	Item No	Mean±SD	Min-Max
Nurse's Image	29	3.82±0.40	82-140
Professional self concept	30	3.12±0.35	49-117
Career Exploration Behavior	28	2.81±0.85	36-140

#### 3.3 간호사이미지, 전문직자아개념 및 진로탐색행동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간호사이미지와 전문직자아개념(r=.63, p<.001), 간호사이미지와 진로탐색행동(r=.43, p<.001), 전문직자아개념과 진로탐색행동(r=.48, 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사이미지, 전문직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진로탐색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of Career Exploration Behavior (N=153)

Variables	Nurse's Image	Professional self concept	Career Exploration Behavior
	r(p)	r(p)	r(p)
Nurse's Image	1		
Professional self Concept	.63 (p<.001)	1	
Career Exploration Behavior	.43 (p<.001)	.48 (p<.001)	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Clinical Practice Stress

(N=153)

Variables	Model1			Model2		
	$\beta$	t	VIF	$\beta$	t	VIF
Constant	-22.73	-1.53		-41.09	-2.441	
Professional self concept	1.08	6.88	1.00	.79	3.95	1.68
Nurse's Image				.406	2.22	1.687
R		.48			.51	
Adj,R		.23			.25	
F		47.40			26.78	
durbin watson					1.868	

### 3.4 진로탐색행동의 영향요인

대상자의 진로탐색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진로탐색 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였으며, 진로탐색 행동과 상관관계가 있었던 전문직 간호사이미지, 자아개념 그리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진로탐색 행동에서 사후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전공 선택이유를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해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1.86으로 오차의 자기 상관이 없었으며,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92~0.98로 0.1이상을 보였고, 분산팽창인자(VIF)가 모두 1.000~1.687로 10보다 작아 독립변수간의 다중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탐색 행동의 검증결과 모델1의 설명력은 23.4%( $F=47.40, p<.001$ ),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전문직자아개념은 진로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이미지를 투입한 모델2의 설명력은 25.3%( $F=26.78, p<.001$ )로 유의하였으며, 모델 1에 비해서 모델 2에서 2%로 증가된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모델 2에서는 전문직자아개념 뿐만 아니라 간호사이미지가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전문직자아개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간호학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본인의 의지가 94명(61.4%)으로 가장 많았으며 졸업 후 자신이 취업하고 싶은 분야는 임상간호사가 110명(71.9%)으로 가장 많았

고, 간호직 공무원이 30명(19.6%)로 뒤를 이었다. 이는 Jeon,(2013)의 연구에서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자신의 의지가 106명(42.4%), 졸업 후 희망하는 분야는 임상간호사 192명(76.8%), 보건소간호사 21명(8.4%)로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18].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간호학과 특성상 입학과 동시에 열심히 공부하면 취업보장이 된다는 인식과 자신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졸업 후 취업하고 싶은 분야는 대부분의 학생이 임상간호사로 진로를 결정하며 2순위는 간호직 공무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선택에 있어 충분히 탐색을 하지 않고 막연히 생각한 취업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간호사로서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 만큼 직업의 종류와 업무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진로탐색행동 점수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간호학 전공선택의 이유에서 본인의 의지가 지인의 권유, 기타 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F=3.49, P=.033$ ), 이는 간호학 지원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Jeon(2013)의 연구와, Moon&Lee (2010)의 연구결과 4년제 4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점을 보였다( $F=9.431, P<.001$ )[5,18].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진로방향을 결정하고 행동으로 진로탐색을 하는 비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대상자의 나이, 성별, 학년, 임상실습 시 선호부서, 졸업 후 자신이 취업하고 싶은 분야에 따른 진로탐색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Choi등의(2016) 연구에서도 진로탐색행동은 일반적 특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24]. 진로탐색행동의 경우 학년이 높은 4학년일수록 높게 나타지만 본인의 의지가 강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에 바로 연결되는 졸업학년에서 졸업

을 하고 바로 취업을 해야 하는 압박함에 학과 교수님과 상담을 자주하게 되고 취업을 위한 다양한 외부활동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진로를 찾게 되는 경우이며 학원과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진로탐색행동은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대상자가 지각하는 간호사이미지 정도는 5점 만점에  $3.82 \pm 0.40$ 점으로 중간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Seong등(2014)의 연구에서  $3.85 \pm 0.40$ 점으로 나타나 비슷한 수준으로 타났으며 [10], Lim&Jo(2016)의 연구에서 보고한  $4.01 \pm 0.50$ 점, Lee(2017)의 연구에서  $4.01 \pm 0.72$ 점, Jang(2019)의 연구에서 보고한  $4.12 \pm 0.46$ 점보다 낮은 수준이다[25-27].

Jang(2019)의 연구에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여 간호학과에 입학하기 전 학교 선생님 또는 지인을 통해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각종 매체의 영향을 받아 2, 3, 4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보다 높은 수준의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27]. 임상실습 경험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를 비교한 Kang&Jeong(2017)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경험군의 간호사이미지가  $3.5 \pm 0.5$ 점, 임상실습 미경험군의 간호사 이미지는  $3.7 \pm 0.5$ 점으로 나타나 임상실습 미경험군이 간호사 이미지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28]. 이는 학교에서 교육하는 이론적 지식과 실제 임상에서 배우는 지식의 차이를 경험하면서 간호학생들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도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의료시설의 발전과 간호사의 수요의 증가로 간호사에 대한 수준과 이미지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간호학과의 질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

전문직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3.12 \pm 0.35$ 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이미지와 전문직자아개념 및 조직몰입에 대해 연구한 Lee (2017)의 연구에서는  $3.40 \pm 0.6$ 점보다 낮았으며, Lee(2004)의 연구결과  $2.94 \pm 0.30$ , Lee&Park (2017)의 연구결과  $2.70 \pm 0.48$ 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26,29-30].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교내실습과 임상실습을 통해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앞으로 갖게 될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높게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다.

대상자의 진로탐색행동의 경우 5점 만점에  $2.81 \pm 0.85$ 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Kim(2017),의 연구에서  $2.70 \pm 0.73$ 점,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 등(2016)의 연구결과  $2.75 \pm 0.75$ 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7,24], 간호대학생들의 진로탐색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간호직군의 직업선택 폭이 넓어

짐에 따라 간호대학생들이 다양한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내적으로 지지해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간호사이미지와 전문직자아개념( $r=.63$ ,  $p<.001$ ), 간호사이미지와 진로탐색행동( $r=.43$ ,  $p<.001$ ), 전문직자아개념과 진로탐색행동( $r=.48$ ,  $p<.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이미지와 전문직자아개념과 진로탐색행동간의 상관관계는 현재 연구 진행된 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 없었으나, 간호사이미지와 전문직자아개념은 Lee(2004)의 연구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와 일부 일치함을 보여준다[28]. 진로탐색행동의 영향요인은 모델2에서는 전문직자아개념 뿐만 아니라 간호사이미지가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406$ ,  $p<.001$ ), 25.3%의 설명력을 보였다. 진로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전문직자아개념과 간호사이미지를 함께 본 연구가 없어 이와 유사한 변수인 진로탐색효능감에 대해 분석한 Moon&Lee(2010)의 연구에서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진로탐색효능감( $\beta=.611$ ,  $p<.001$ )이며 본 연구 보다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5]. 진로탐색행동은 진로효능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진로탐색효능감의 수준이 높은 학생이 진로탐색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강하듯이[5],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전문직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간호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간호사이미지, 전문직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려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간호학과에서 간호사이미지와 전문직자아개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이 미비한 실정이다.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사이미지와 전문직자아개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받고 본인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와 연계된 진로탐색행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부지역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거나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www.kabone.or.kr,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 [2] www.moe.go.kr, Ministry of Education
- [3] M.A.Kim, J.Y.Lim, S.Y.Kim, E.J.Kim, J.E.Lee, and Y.K. Ko,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c Psycho Mental Health Nursing*, Vol.13, No.4, pp.383-391, 2004.
- [4] S.Stumpf, S.M.Colarelli, K.Hartman, "Develop-ment of the career exploration survey(CES). *Journal of Vacational Behavior*, 22, pp191-226, 1983.
- [5] I.O.Moon, G.Y.Lee,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6, No.1, pp.83-91, 2010.
- [6] H.Y.Koo, O.K.Park, and S.Y.Jung, "Path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Korean Nursing Students - Based on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Vol.23, No.1, pp.10-18, 2017.
- [7] Y.J.Lee, Y.S.Kim,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 Autonomy, and Career Search Behavior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3, No.4, pp.474-485, 2017.
- [8] Y.H.Seo, J.W.Lim, and B.Y.Jung, "The effect of Career Calling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n empirical analysis of mediating effects of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and moderating effects of Colleg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Vol.32, No.3, pp.265-284, 2019.
- [9] I.J.Song, "A Comparative Study of the Opinon on the Image of Nursing Among the Doctors, Nurses, others Hospital Personnel and the General Public,"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2, No.2, pp.51-62, 1993.
- [10] J.A.Seong, E.Y.Yeom, and Y.S.Do, "Image of Nurses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7, No.4, pp.342-349, 2014.
- [11] Y.M.Kim, Y.S.Kang, "Nurse's Image Perceived by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9, No.3, pp.384-395, 2016.
- [12] J.Choi, N.S.Ha, "The Relationship Among Image of Nurses, Self Esteem and Professional Socialization in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5, No.1, pp.54-63, 2009..
- [13] D.J.Oh, C.J.Choi, and B.E.Kwon, Y. H. Park, "The Effects of Image of Nurses on Professional Socializa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1, No.1, pp.64-72, 2005.
- [14] J.W.Giger, J.S.Davit, "Self-image and job satisfaction in varied setting," *nurs Manag*, 19, pp50-58, 1983.
- [15] D.Arthur, "Measurement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nurses :developing a measurement instrument," *Nurse Education Today*, 15 ,pp328-335, 1995.
- [16] C.H.Noh, K.Y.Song, "An Analytical Study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Hospital Nurs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26, No.1, pp.94-106, 1996.
- [17] M.A.Kang, S.K.Lee, "The Relationship of Communication Competenc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2, No.4, pp.425-461, 2016.
- [18] M.K.Jeon, "Factors Influenc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7, No.4, pp.119-129, 2013.
- [19] H.R.Lee, K.O.Choi, E.J.Go, M.R.Hong, S.Y.Kim, and H.S. Shin, "Research on nurse image," *East-West Nursing Research Institute*, 15, pp45-65, 1992.
- [20] S.H.Jang, "Survey on Nurse's Image," *Kyung Hee University Master's Degree*, 1998.
- [21] H.R.Song, "Comparison of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perception of care among nurses and nursing students," *Eulji University Master's Degree*, 2010.
- [22] F.Girard, N.Linton, J.Besner, "Professional Practice in Nursing:A Framework", *Nursing Leadership On-line Exclusive*, June, pp1-8, 2005.
- [23] D.S.Choi, C.Y.Jung,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Motivational Factors and Attachment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22, No.1, pp.115-143, 2003.
- [24] E.Y.Choi, M.J.Choi, S.B.Park, "The Effect of Career Barrie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Making Pattern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Mal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2, No.3, pp.334-344, 2016.
- [25] K.M.Lim, E.J.Jo,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and Image of nurses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4, pp.556-566, 2016.
- [26] J.Y.Lee, "A Study on Nurse Imag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3, pp.284-295, 2017.
- [27] Y.M.Jang, "The Influence of Nursing Image, Job Value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First Yea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Vol.19, No.3, pp.31-38, 2019.
- [28] M.R.Kang, K.S.Jeong, "A Comparison of the Nurses Image according to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7, No.4, pp.342-349, 2017.

- [29] J.A.Lee,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0, No.3, pp.325-334, 2004..
- [30] E.S.Lee, M.S.Park, “A Study of Convergence Relationships among Nurses’ Imag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1, pp.311-320, 2017.

김 희 연(Kim-Hee Yeon)

[정회원]



- 2016년 8월 :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법의간호학과 (수사학석사)
- 현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중)
- 2009년 4월 ~ 2017년 2월 : 여의도성모병원 간호사
- 2021년 3월 ~ 현재 : 가톨릭상지대학교 초빙교수

<관심분야>

시뮬레이션, 법의간호학

김 보 미(Bo-Mi Kim)

[정회원]



- 2015년 2월 :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7년 2월 : 고신대학교 일산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경북전문대학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조직몰입, 임상수행능력